

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2016. 12. 14.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인사말씀

- 우리 경제·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, 유럽의 은행부실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- 대내적으로는
내수·수출 부진, 고용시장 활력 저하 속에서
가계부채, 구조조정이
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
지난 주 국회의 탄핵의결이라는
정국의 큰 변화까지 발생하였습니다.
- 살얼음판과 같이
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,
경제의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
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합니다.
- 분야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,
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
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
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.

2 금융부문 대응방향

□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
서민·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은
가장 우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.

□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
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·취약계층과
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제일 먼저 현실화될 것입니다.

○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위한
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.

○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과 함께
서민·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
충분하고 빈틈없는 지원방안을
조속하게 마련하여야 합니다.

□ 금년 금융당국은 민간과 함께
서민에 대한 두터운 금융지원을 위해

○ ①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연 5.7조원으로 확대하고,
②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를 유도하며,
③사잇돌 대출*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등
다양한 지원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.

* '16.12.9일까지 총 3,243억원(은행 2,303억원, 저축은행 940억원) 지원

□ 이와 함께 경제의 다른 중요한 축인
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

○ ①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·투자·보증 자금과
②우수 기술기업에 그간 55.3조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하고,
③미래 新성장산업 지원을 위해
산업-금융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
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.

□ 금융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
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

○ 특히,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
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
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서민금융 지원>

□ 먼저,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여

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어려운 경기상황에 대응하여

미소금융, 햇살론, 바퀴드림론, 새희망홀씨 등
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
금년 5.7조원에서

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

약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

현재 공급중인 1조원 규모의
사잇돌 대출의 총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즉시
추가로 1조원 규모의 보증공급도
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하고,

개인회생·워크아웃 등

채무조정을 완료하신 분에 대한

중금리 상품 공급 등도 강구하여

서민들의 고금리부담이

경감될 수 있도록

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□ 확대된 자금지원 여력이

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

서민금융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

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

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설(33개→40여개)하는 등
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하는 한편,

○ 상담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,

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

전달체계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.

□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

서민금융상품도 새롭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그간 정책 서민금융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

기존 상품간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면서

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

상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청년·대학생 등 그 동안 서민금융에서

소외된 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

서민금융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

노력하겠습니다.

□ 또한,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시 연체가능성이 높은
한계차주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
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-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
신용대출 119 프로그램* 확대 등을 통해
한계차주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
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
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*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만기 2개월前 사전 통지, 상담지원 등

- 이러한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는
긴급자금대출 확대, 상환유예 등을 통해
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하락한 한계차주가
조속히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
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종합적·입체적인 자활·재기를 지원하기 위해
고용·복지서비스와 서민금융과의
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- 화상상담 시스템 구축,
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통합입점 등을 통해
궁극적으로 '소득 창출을 통한 자립'을 위하여
금융지원에 더하여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이
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
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<중소기업 지원>

□ 또한,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
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
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.

□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중심 축인 만큼,
올해보다 약 4조원 증가한
총 59조원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.

- 창업·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
적극 확대('17년중 18조원 이상)해 나가는 한편,

- 특히,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에 대해
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
연 12조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신기보는 예년 수준의 보증공급에서 벗어나
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시키겠습니다.

- 신기보의 보증공급을 작년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
총 66조원 이상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산업은행은 중견기업,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
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중견기업에 대해 약 26조원 이상 지원하고,
인공지능, 로봇산업 등 미래신성장산업에도
20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.

- 그동안 기술금융은 약 55조원 이상('14.6월~) 자금을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하면서 담보 위주의 보수적·보신적 금융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
- 앞으로 기술금융은 이러한 자금공급 확대 노력과 함께, 여신심사 관행에 완전히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금융의 대표 여신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
- ❶ 우선, '17년 중 기술금융 공급잔액(평가액 기준)을 당초 계획이었던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- ❷ 아울러,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“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 시키겠습니다.
- ❸ 기술금융 투자도 확대하여 '19년까지 1조원 규모로 예정되었던 기술금융투자 목표를 내년까지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는 한편,
 - '19년까지 추가로 3조원 이상 기술금융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- 기술금융과 함께 보수적 여신관행을 일대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 금융개혁과제로 위탁보증을 차질없이 도입해 나가겠습니다.

- 그간 은행권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낙후된 여신심사 방식을 지속해 왔습니다.
- 이에 따라, 은행권은 여신심사 능력 개선보다는 규모 확대에 치중하는 양적 경쟁구조가 정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
 - 특히,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 보증공급 구조로 인해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이 전체 보증잔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등 보증재원 배분의 비효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의 '보증 따로, 대출 따로'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.
 - 이를 통해 규모가 아니라 여신심사능력에 따라 은행의 성패가 결정되는 질적 경쟁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.
-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되,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우선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3 당부사항

□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

금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

○ 비가 올 것을 사전에 알려서
홍수에 대비한 독을 쌓게 하고,

○ 비가 너무 세차게 올 때는
처마를 빌려줘
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.

□ 먼저 은행권이

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
중추적인 역할을
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❶ 취약계층 및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한
새희망홀씨와 사잇돌 대출을
탄력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실직, 휴폐업 채무자를 비롯한
한계채무자에 대해
상환능력 및 실직, 휴폐업 상황 등을 고려한
자체 맞춤형 워크아웃도 활성화해야 합니다.

❷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
정책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
확대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
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특히,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 담보, 보증이 없더라도
기술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체 평가를 통해
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하고
여신심사 시스템에 완전히 정착되도록
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아울러, 내년부터 위탁보증이 시범 실시되는 만큼
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
보증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□ 정책금융기관들은

서민·중소기업을 위한
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
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.

○ 아무리 금융기관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
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접근한다고 하더라도
시장실패의 영역까지 부담하기에는
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.

○ 서민금융진흥원, 기업은행과 신·기보는
재원 확보 등을 통해 대출·보증 여력을 확충하고,
더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를 대비한
위기대응 매뉴얼을 면밀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.

4 맺음말씀

□ 목민심서에 보면

‘위기 후 대응은 사전 대비에 미치지 못한다*’는 말이 있습니다.

* 救荒之政 莫如乎豫備(구황지정 막여호예비) :

“흉년에 구제하는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”

- 현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가
금융시장의 불안과
기업·경제활동의 위기로 확대되는 상황을
예방하기 위해 **선제적 조치가 중요한 시점**이며,

- 그 최우선 과제로
**서민과 중소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
민관을 아우르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.**

□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

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**충분한 자금공급과
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·해소**에
최선을 다할 예정이며,

-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
서민과 중소기업이
**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
결코 흔들림이 없도록
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.**